

# 평화의 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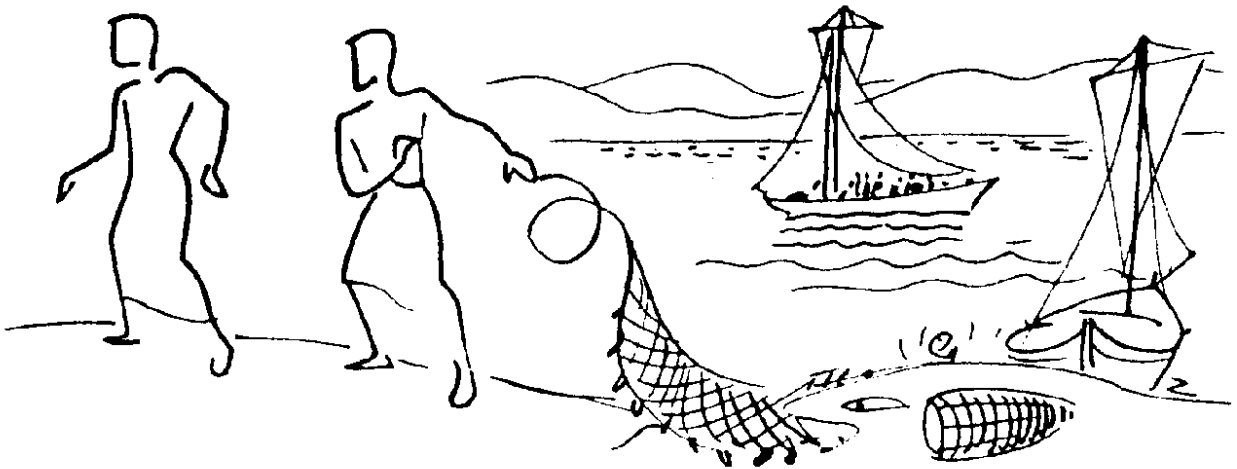
재속 프란치스코 피닉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준비형제회 월보

Secular Franciscan Order of Phoenix  
St. Daegun Andrew Kim's Forming Group



평화의 사도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

2007년 2월 (제 33호)



## 제자들의 사명

**28.** <sup>19</sup>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sup>20</sup>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월례회: 매월 4째 토요일 오후 4시, 회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영적 보조: 장민호 미카엘신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Minister: Michael Reidy (480)722-9446

## 입회기 양성교재 ‘폰테 콜롬보’

### <제14과>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하느님 나라 건설

#### 회칙 2장 생활 양식

##### 제 14조

선지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불리운 회원은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더 완전한 인간이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크리스천의 봉사 정신으로 자신의 책임을 힘껏 완수해야 한다.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은 재속 프란치스코안이 **형제애**와 **복음의 정신**을 교회와 사회 안에서 실현함으로써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 1.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세상

**하느님 나라**는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세상이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품성과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모든이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며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으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여정에 있는 나라이다.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시어 모범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완전한 인간이 되어 주께서 병들고 죄 많은 이들을 인간답게 살게 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형제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재속프란치스코안은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받들어 사회와 교회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쉼을 해야 한다.

#### 2. 봉사와 섬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 놓으심으로 나타난다. 봉사를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 모시어 받든다는 뜻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다른이를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를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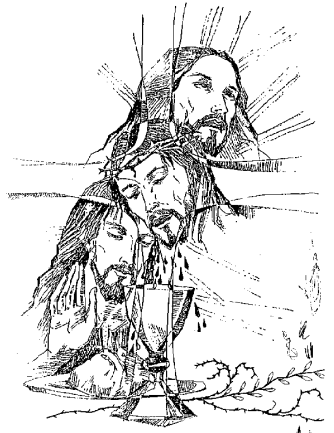


**프란치스코의 봉사정신**은 **작은자의 정신, 사랑의 정신, 순수한 마음**으로 표현된다. 프란치스코는 봉사에 있어 책임을 맡기 보다 **작은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가르쳤다. 형제간에는 누구도 권한이나 지배권을 가지지 말고 상호간에 봉사하고 순종하며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봉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이며 대가로 섬김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 3.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형제애**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마땅하며 이것이 **복음화**이다.

재속프란치스코안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신의 일과, 재물을 통해 세상을 형제적이고 복음적으로 만든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형제회는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다.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들과 함께 하느님과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형제회를 기쁨이 넘치는 복음화 장소로 가꾸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재물은 공동선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직업이 단지 생계의 수단만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봉사가 될 수 있으며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게 된다.



## 성 프란치스코 영적인 권고 <18. 이웃에 대한 동정심>

1. 이웃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가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을 때 그 이웃이 부족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부족해 주는 사람은 복됩니다
2. 모든 좋은 것을 주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종은 복됩니다. 실상 어떤 것이라도 자신을 위해 남겨 두는 사람은 "자기 주 하느님의 돈을 자기 안에 묻어 두는" 사람이 되며, "가진 줄 알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 타 미주 지역 형제회 소식

♥ 사순 피정이 클라라 형제회와 함께 3월25일 일요일 (8:30-5:30) MD 수도원 옆에 있는 학교에서 있겠습니다. 강사: 안티모 신부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2007년 2월 월보>

♥ 5월 24일에 있을 형제회 캠프는 형제회 행사이며 프란치스코 형제적 사랑을 나누기 위한 연례행사이오니 회원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성녀 글라라회 2007년 1월 월보>

♥ 북한 선교 후원금은 1월 말 송금 할 예정입니다. 아직 미납이신 분은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절호의 기회임을 생각하시어 후원 회원이 아니신 분도 성의껏 오늘 도와주시면 기쁘겠습니다.

♥ 2007년 연례피정(7월13일 - 15일)에 미국에 계신 김 기수 ofm신부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2007년 1월 월보>

## 피닉스 준비형제회 소식 및 회계보고

♥ 3월 11일(일) Peace Fraternity의 월례회에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함께 했으면 합니다.

♥ 4월 28, 29일 1박2일 형제회 캠핑이 Apache Junction HOA Campgrounds 에서 있습니다. 4월 월례회도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장소: AJ HOA Campgrounds  
1540 S. Tomahawk Rd., AJ, AZ  
일시: 4/28 오후2시—4/29 오전11시



♥생일 축하합니다. 3/18 김정오 바오로

♥ 2007년 2월 월례회 형제회 미사 지향 ♥

생미사	강선희 비비안나 임극선 요셉 박용화 베로니카 김천수 안드레아 조차형 안드레아	건강 기원
-----	--	-------

### <회계보고 2월말>

	항목	금액	합계
이월			\$421.27
수입	회비	\$130.00	
지출	1월 형제회 미사예물	\$60.00	
잔고			\$491.27

## [교회상식 교리상식] 사순시기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재의 수요일(21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시기와 관련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살펴봅니다.

△사순시기란 어떤 시기인가요.

▶교회 전례력에서 사순시기는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신비인 파스카(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신비를 잘 준비하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신자들은 세례성사를 통해 죄에 죽고 하느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또 예비신자들은 이 세례성사를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은 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에 특별히 사순시기에 더욱 참회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생활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 부활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재의 수요일에서 성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통상 40일이라고 해서 사순(四旬)시기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모세의 40일 단식, 엘리야의 40일 단식, 그리고 예수님의 40일 광야 단식에서 보듯이 40일이란 때가 찰 때까지의 정화 기간을 나타냅니다.

신자들은 처음에는 부활 대축일 직전 며칠 동안만 단식하고 금육하면서 부활 대축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간 유혹받으신 것을 따라 40일 동안 기도와 절제와 희생을 통해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순시기를 재의 수요일에 시작하는 이유는.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은 원래 큰 잘못(예를 들면 배교)을 지어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에 돌아오고자 할 때 참회복을 입거나 머리에 재를 쓰고 속죄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참회 기간은 성 목요일에 공동체 앞에서 화해 예식을 할 때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머리에 재를 쓰는 것은 참회와 속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재의 수요일에 우리는 재의 예식을 통해 머리에 재를 받고 회개와 속죄의 기간인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의 수요일에 우리는 재를 받음으로써뿐 아니라 금식과 금육을 실천함으로써 참회와 속죄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사순시기 특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미사 전례에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제의 제의 색깔이 참회와 속죄의 색인 자주색으로 바뀝니다. 미사 때에 알렐루야를 바치지 않으며, 대영광송도 대축일이 아니면 바치지 않습니다. 알렐루야나 대영광송은 모두 기쁨을 표시하는 노래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르간을 비롯한 악기들은 성가 반주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회와 속죄 즉 재계(齋戒)의 의미가 그만큼 강조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에서도 변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와 기도의 시기여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십자가의 길 기도를 평소 때보다 많이 바치지요. 또 참회와 속죄 표시로 자발적 희생과 절제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성주간이란 무엇인가요.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시기 마지막 한 주를 성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성주간은 사순시기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파스카 성삼일 중 성토요일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백성들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부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 마침내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 부활하기 직전까지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대한 주간' 또는 '수난 주간', '구원의 주간'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가지 더

교회는 사순시기 참회가 "오로지 내적이고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한 외적이고 사회적인 참회가 되어야 한다"(전례헌장 110항)고 가르칩니다. 사순시기를 맞아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구역이 또는 우리 본당이 이런 외적이고 공동체적 참회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실천해 봅시다.

이창훈 기자changhi@pbc.co.kr

[평화신문 2007.02.16]